

서남권 개발 또 '암초'

전남도 요청 61개 사업중 예산반영 4개뿐 균발위 제시 20개 사업도 중·장기로 미뤄

‘서남권 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남도가 건의한 서남권 개발 관련 사업 대부분이 해당 부처의 부정적 의견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더욱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목표·무안·신안 중심으로 정해졌던 사업권역을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해남·영암과 강진·완도·진도까지 확대해달라는 전남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남권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9월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중장기계획에 전남도와 균발위가 건의한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일 채일병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이 공개한 국무조정실의 ‘서남권 사업 2008년 예산 반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전남도가 건의한 서남권개발 관련 61개 사업(26조원 규모)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또한,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서남권 개발을 위해 제시한 20개 사업도 대부분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되면서 조기 추진은 어렵게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서남권 개발 관련 사업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신규 사업은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R&D(연구·개발) 센터,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발효식품 RIS 사업 등 4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했다.

또 사업성 검토 결과 태양광 수소 전지 부품소재 공장, 크루즈 부두 건설,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새천년대교(암해~암태도) 건설, 창포호 레저단지, 한중 국제산업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은 2009년 이후 중장기 사업으로 미뤄졌다. 대형 복합면세쇼핑단지, 농산물 유통 물류단지, 기초소재 복합가공 물류센터, 아시아 농업비즈니스 파크 등은 아예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서남권 개발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이 공조 체제를 구축, 정부 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전남도과 균발위가 건의한 서남권 개발 사업이 오는 9월 정부가 수립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더라도 내년 이후의 중장기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선대 장미빛 사랑축제

휴일인 20일 조선대 장미원을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형형색색 만개한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다. 2003년 5월 조성된 장미원에는 152종 1만4천300여 그루의 장미가 식재돼 있다. 조선대는 오는 23~24일 '제5회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투기과열지구 빠르면 이달말 해제

이용섭 견교 시사

광주와 부산 등 주택시장 침체가 뚜렷한 일부 지방 대도시가 빠르면 이달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조원기에 들어갔다.

이용섭 견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달 또는 내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경쟁이 심해 주거불안이 우려될 경우 견교부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가 모두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3.2%에 그쳐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상인 서울(18.9%), 경기(24.8%) 등과 대조를 보이면서 ‘획일적 규제’ 논란을 빚었다. 부산의 경우도 지난해 집값이 0.6% 떨어질 만큼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이었어서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오는 8월까지 주택 판매제한이 없으며, 9월부터 분양가 공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준희 견교부 차관은 20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면서 “지금은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부서 및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社告

제16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5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강당
박정진 교수 '통풍 관절염 증상과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5일(금) '제16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40대 이상의 염증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통풍 관절염'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정진 교수로, 통풍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및 치료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내용은 오는 29일(화)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통풍 관절염
- 강 사 : 박정진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전남대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병원 임상 강사
-경상대병원 류마티스내과과장
-대한내과학회·대한류마티스학회·대한노인병학회·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 회원

- 일 시 : 5월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대세 거역하는 정치 않겠다”

盧대통령 무등산 산행...“범여 대통합 수용”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광주 무등산 산행에서 범여권 통합문제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한 대통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무등산 산행 길에 동행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시민, 노사모 회원 등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제가 속한 조직의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나는 지역주의로 돌아가는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그때도 지금도 그것이 대의”라면서도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당이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역 당으로의 회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

지만 당이 공론을 모아 질서 있는 통합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통합이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추후 여론 통합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무등산에 오른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광주에서 “대통령이 되면 무등산을 함께 오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노 대통령은 “속을 지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심을 끌었던 무등산 미사일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해 완곡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당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당홍보실 1588-5051 ▶T.(061)360-5000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간 변함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뉴욕생명-재정적 안정성, 성실성, 인본주의 원칙으로 고객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의 파랑새, 뉴욕생명과 만나세요! 뉴욕생명이 약속하는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보험상담 및 문의전화 062-236-2002

광주지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KT광주정보통신 6층



www.nyl.co.kr